



<장르>

미스터리 추적 색채 감성 심리 스릴러

<로그라인 >

국전 화가로 인생 탄탄대로를 걷던 나!
어느 밝은 오후, 과거의 친구로부터 잊고 있었던 과거 물건들이 배달되어 온다.
그 때문에 내 귓구멍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한다.

<기획 의도>

글이 글처럼 써지지 않을 때가 있다. 머릿속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그 무언가가 여느 때와 같이 강렬한 메시지를 두드리고 있음에도 그 떨림이 손가락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모양이다. 창작한다는 건 그 만큼 인내와 고통의 과정을 거쳐 탄생한다. 비단 고귀하게만 느껴지는 '예술'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다. 이 세상 모든 사물의 창작 과정은 나도 모르게 '유레카'를 외치는 순간에서 태어난다고 할지라도, 그 순간 또한 어쩌면 그동안 쌓여온 내 인생의 일기가 만들어낸 정리법에 따른 것일지도 모른다.

내가 꿈꾸고 상상하고 만들어내는 모든 건 나의 찬란한 역사 속에서 태어난다. 현실과 이상의 사이에서 해매는 청춘들의 이야기를 그렸지만, 이를 통해 현실이 어떻게 이상이 되고, 이상이 어떻게 현실이 되는지 그 성장 과정을 표현했다는 점에서 충분한 재미를 안겨 주고자 기획했다.

<등장인물>

성진경 (여, 나이 40세)

현재 미술계에서 최고로 잘나가는 화가이다. 아트 아시아 2021 초대전에 제출할 다음 작품에 모두 기대하고 있다. 그러던 중 18년 만에 나타난 친구 수정이를 만난 후, 과거로부터 물건들이 배달되면서부터 갑자기 귓구멍에 피가 흐르기 시작한다.

오수정(여, 나이 40세)

과거 진경이랑 같이 미술대학을 다니던 뛰어난 재주를 가졌지만, 국선에서 떨어진 후 진경의 첫사랑과 결혼하여 주부로 살고 있다. 그러다가 무슨 일인지 진경에게 과거에 물건들을 보내기 시작한다.

김영호 (남, 나이 45세)

진경의 첫사랑으로 웬일인지 진경을 택하지 않고 수정과 결혼하여 미술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우연히 다시 만나 진경에게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고백한다.

대학생 진경 (21세)

대학생 수정 (21세)

대학생 영호 (26세)

그 외 여기자와 카메라맨, 여사무실 직원, 의사, 택배기사, 미술실 아이들

<시놉시스>

돌려줘!~~ 내거 돌려줘!!

아트아시아 2021 초대전에 초대를 받은 화가 진경은 갤러리에 전시한 작품 자신의 작품 <노란 태양의 노래> 앞에서 인터뷰를 진행한다. 데뷔는 붉은 그림자, 이번에는 노란 태양의 노래, 그럼 다음 작품 색깔은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기자에게 대답은 노코멘트!

갤러리 화장실에서 우연히 18년만에 대학 미술동기인 오수정을 만나고, 예전보다 많이 뚱뚱하고 커진 몸매에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한다. 18년만에 만난 수정은 진경에게 무언가를 돌려달라고 하는데, 진경은 수정이가 무슨 말 하는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택배 왔니?

수정을 피하여 갤러리 사무실에 온 진경은 도착한 택배를 본다. 보낸 사람은 오수정 택배 박스 안을 보면 오래전에 대학시절에 빌려준 모네의 화집이다.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그 날부터 수정이는 매일 택배를 보내온다, 기억도 가물가물한 자기가 준 스카프, 스타킹, 의 물건이다. 수정이가 보내오는 물건 때문에 은근히 신경이 쓰이고, 그 바람에 귓구멍에서 피가 흐르는 현상이 생긴다.

그딴 거 기억할 리가 없잖아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라는 말을 들은 진경은 친구 수정에게 연락을 하지만 연락이 되지 않고, 메시지를 남기고, 작품작업에 몰입하는데, 다시 울리는 초인종 소리에 나가보며 또 다시 도착한 택배 박스. 박스를 열면 이번에는 대학시절에 준 택시비 만원이다. 이후에도 손수건, 풍선껌, 거기다 오래되어 곰팡이가 생겨 파래진 샌드위치 등 진경은 수정이가 보내온 택배 박스에 신경이 곤두쓰며, 화도나고, 다른 한 편으로는 괴로워하면서 다시 또 귓구멍에서 피가 흐른다.

내 거야! 내 거라고~

더는 참지 못한 진경은 수정의 미술학원을 찾아간다. 미술학원에서 진경은 오랜만에 지금은 수정의 남편이 된 첫사랑 영호선배를 만나 조금은 설레인다. 그러던 중 마지막 물건을 보내겠다는 수정의 말에 잔뜩 화난 얼굴로 미술학원으로 수정이를 찾아가는데..... 거기서 진경은 뜻밖의 충격적인 진실과 맞닿는다.